

비리혐의 기소 부시장 행안부 산하기관 영전

민간공원특례사업 특혜 의혹

총선 출마용 불법당원모집도

행안부 "직위해제 요청 없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부여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직위해제'는 커녕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발령을 받았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24일자 고위공무원(국장급) 인사를 통해 정중제 부시장을 정부 산하 기관인 주민등록번호위원회 사무국장(고위공무원단)으로 전보했다. 지난 2018년 2월 행안부에서 광주시로 전보됐던 정 부시장은 2년만에 친정인 행정안전부로 복귀한 셈이다.

문제는 정 부시장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 부당하게 업체 선정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기소됐다는 점이다. 애초 검찰은 정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 부시장은 지난해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부시장은 또 4·15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불법으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을 '직위해제'

할 수 있다. 금품수수 비위 등으로 감사원·검찰·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경우에도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행정안전부는 정 부시장을 직위해제하는 대신 주민등록번호위원회 사무국장(고위공무원단)으로 전보발령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법률상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 부시장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 형이 확정되면 아직 멀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 부시장은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광주시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광주시의 판단을 근거로 정 부시장을 산하기관 국장으로 발령냈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으로 재직하는 공무원의 직권면직 여부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요구(제청)했을 때 장관을 경유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광주시에서 직위해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인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1차적으로 제청권을 가진 광주시가 직위해제를 할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뒤, 인사이동을 요청해서 이번 정기 인사 때 정 부시장을 포함시켰을 뿐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나아가 부단체장에 대한 주도권은 광주시장이 갖고 있으며, 행안부는 지자체의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광주시와 행안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말 많고 탈 많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업체 선정 의혹은 물론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는 정 부시장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행안부로 복귀했다.

김경석 기자



신천지에 수교 대구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광주지역 신도와 배우자 등 무려 6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진환자가 추가로 발생한 소식이 알려진 이후 첫 월요일인 23일 오전 광주 북구 오치동 신천지에 수교 앞을 한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광주·전남 도심·관광지 썰렁

패밀리랜드·대형마트 폐장

천주교 성당에선 미사 중단

일명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진환자가 속출하면서 일요일인 23일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 관광지와 상가는 화창한 날씨에도 썰렁한 모습을 보였다. <관련기사 4면>
확진 환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광주 패밀리랜드와 대형마트, 커피숍 식당 등은 모두 폐쇄조치가 내려졌으며, 천주교 성당들은 아예 다음달 5일까지 미사를 중단하고 신자들의 집회와 모임도 모두 금지했다.

광주와 전남은 이날 낮 최고기온이 10도를 웃돌고 미세먼지도 없었지만, 시민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면서 휴일을 보냈다.

버스터미널과 복합상영관, 쇼핑몰 등이 몰려 있어 평일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은 광주 서구 유스퀘어 역시 이용객이 크게 줄었다.

전날 코로나19 의심환자로 보이는 20대 남성이 쓰러져 한바탕 소동을 벌였던 유스퀘어 내 대형서점은 곧바로 영업을 중단하고 긴급 방역을 벌였으며, 해당 남성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자 영업을 재개했지만 영업장 내부가 썰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대형마트들이 두 번째 일요일을 맞아 정기휴무에 들어간만큼 상대적으로 손님들이 부족해야 할 백화점들도 평소 휴일보다 한산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광주 동구 충장로에도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으며,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일요일이면 찬송가 소리가 울려 퍼지던

천주교 성당들은 일제히 미사를 중단했다. 이는 광주대교구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광주대교구 미사가 전면 중단된 것은 1937년 교구 창설 이래 83년 만에 처음이다.

천주교와 달리 주일 예배를 실시한 개신교 교회들은 다만 신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국립공원 무등산과 담양 추월산, 화순 백아산 등 주요 산을 찾은 등산객도 평소 주말보다 줄어든 모습이었다.

여수 오동도에는 동백꽃이 50% 이상 개화했지만, 관광객은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목포 해상케이블카와 신안 천사대교 등 전남 서부권 관광지는 물론 여수 항일안과 순천만 국가정원, 광양 매화마을 등 전남 동부권 주요 관광지에도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최이슬 기자

전남 농어촌지역 'LPG저장탱크' 보급

전남도가 올해 도내 농어촌 소규모 마을 13곳을 대상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에 나선다.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소규모 농어촌마을을 대상으로 LPG 저장탱크, 가스배관, 보일러, 안전장치, 계량기를 설치해 LPG를 도시가스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시·도별로 2~3개씩 시범적으로 실시해왔

으나, 도민들의 관심과 사업 수요가 많아지면서 작년부터는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2개였던 도 자체사업을 올해는 10개까지 대폭 확대해 총 13개 마을(국비사업 3, 자체사업 10)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보급대상 마을 선정은 매년 8~9월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아, 사업 적합도와 탱크부지 확보, 주민참여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허성민 기자

감염병 확진환자 격리치료공간 추가 확보 시급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격리병상 등 의료시설 확보에 나섰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는 현재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음압시설을 갖춘 국가 격리 병상 12개가 운영 중이다.

최근 추가 코로나19 확진환자로 확인된 광주지역 6명은 두 병원에 3명씩 나눠 격

리하고 있다.

두 대학병원 외에도 광주기독병원과 보훈병원 등 7곳에 음압 병상 19실이 갖춰져 있다.

광주시는 빛고을 전남대병원 등 2곳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광주시는 증세가 심각하지 않을 경우 국

가 격리병상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또 자가 격리가 적절하지 않고 판단되는 접촉자들을 밀접 관리할 수 있는 시설로 소방학교 생활관 외에 5·18 교육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두 곳에서는 모두 104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용섭 시장은 "최악의 상태까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보완해가겠다"고 말했다.

최영범 기자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 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견된 침묵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